평등 일구는 사람들

“장애인 잠재력 인정한다면 편견 없을 것”



이동한
한국사회복지협회장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동한 한국사회복지협회장(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은 장애인 자립에 있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평등하다’ 는 확고한 신념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스스로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장애인은 일 할 수 없다’ 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 직업재활 · 자립사업을 처음으로 일궈냈고 장애인 고용의 새 장을 열었다. 국가 정책이 시혜적 수준에 멈춰있던 1980년대, 정책과 제도, 정부지원금 없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감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잠재력이 아주 많고 또 다양합니다.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맞춤식 직업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사회 당당한 일꾼이 될 수 있지요.”

계량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이 근본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 회장은 1987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했다. 제주도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장애인근로센터를 개원했다. 한 설비당 10명씩, 10개 공정만 운영해도 100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는 각기 개인의 자립 토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사업분야도 조경, 한복, 목공예, 귀금속공예 등으로 점차 확대됐으며 10개 분야에서 장애인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연계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후 34년의 세월이 지났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춘강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자립에 성공했고, 완전히 독립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과 직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자립할 수 있다는 이 회장의 확신이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지금도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산하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세탁과 복사용지, 전산, 섬유 등 4개 품목, 직업재활어울림센터에서 된장과 양초, 꽃차를 주력 품목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들이 숙명적으로 가지게 되는 명제는 ‘홀로서기’ 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장애인 부모들의 명제 또한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걸어온 길에 있습니다. 우리사회, 그리고 장애인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자리한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죠.”

1987년에 복지법인 춘강 설립
30여년 간 장애인 자립 · 재활
뿌리깊은 화두인 ‘홀로서기’는
재능 발굴 · 교육으로 실현 돼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은 안 팔리는 상황’ 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1997년 8월 춘강근로센터는 ‘2002년 월드컵 관련상품 생산 유망기업’ 16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유일했다. 1998년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00년 전국공예품 대전 장려상을 수상, 2003년에는 제주도 관광민속공예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편견과 차별의 실체가 없음을 실력으로 증명한 셈이다.

장애인연계고용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구매제도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는 정부정책 속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만 지원하는 것은 퇴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애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 정책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척적 · 후천적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전문의료시설도 개원했다. 1994년 제주재활의원으로 문을 연 제주춘강의원은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건강 증진과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장은 2001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8년 적십자 박애장 금장, 2012년 호암상 사회봉사부문, 2018년 아시아 필란트로피(philanthropy, 박애주의)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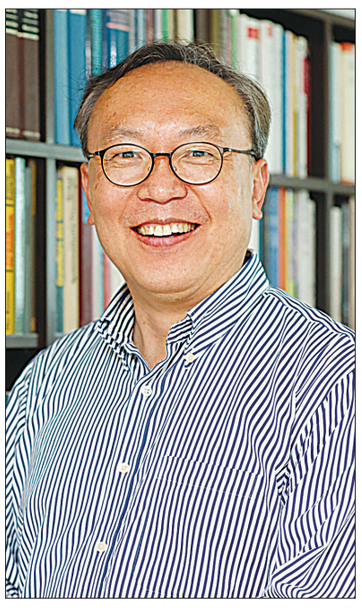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평등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신이 좀 불편다는 이유로 꿈을 이루는 것을 개인의 몫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평등의 종교이자 자비심의 종교입니다. 불자들만이라도 좀더 열린 시각으로 장애인들을 동등한 우리사회 도반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의 원력은 이제 제주와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지족, 캄보디아, 케냐, 에티오피아의 장애인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장애인 자립과 편견 해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이동한 회장 역시 두 다리에 의족과 철심을 단 장애인이다.

훼불 사과로 종교평화 본질에 화두 던져

평등 일구는 사람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글=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최근 5년간 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웃종교인 중 한 명이 바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다. 2016년 개운사 훼불사건 당시 개신교계를 대신해 불교계에 사과했고 개운사 복구 불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재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고충을 겪었다.

최근 법원은 손 교수의 재임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 교수가 강단에 서야 하는 정당성과 명분은 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지만 그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손원영 교수가 종교평화의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은 이 과정이 비단 손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긴 투쟁의 출발점이 ‘훼불행위에 대한 사과’ 라는 점에서, 손 교수는 서로 다른 종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후 그는 종교평화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훼불로 고통받던 불교계에는 기대를, 배타적인 일부 개신교계에는 불편함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 종교평화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일종의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종교를 교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을 오히려 개신교계와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상처였지만, 한국 개신교의 본질적 문제, 또 종교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오늘날 개신교의 현재 모습에 대해 묵직하면서도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개신교 교단이 출범한지 5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 개신교의 부패와 퇴보는 과거 중세 가톨릭교회의 타락에 견줄 만큼 심각하다는 가슴 아픈 진단이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모습은 지금과 다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했으며 한국의 전통종교와 교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 선교사들이 수양회를 사찰에서 할 정도로 열린 자세였다면, 지금 일부 교회는 사찰에 가는 행위조차 불편해 합니다. 오히려 18~19세기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퇴보한 셈이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누군가 잘못한 일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 지” 묻자 예수는 “일곱번씩 일흔 번 용서하라”고 답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사실상 끝없는 용서를 상징한다.

2016년 개운사 훼불사건 사과
이후 서울 기독대 교수서 파면
“한국 교회 현 주소 점검 계기”
레페스포럼 등 종교교류 확대

손 교수는 “우연히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4년간 언론에 보도된 훼불사건을 정리한 논문을 봤는데 408회로 집계됐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불교계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훼불을 한 측과 이를 용서한 측 가운데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의 예언자 정신은 바로 프로테스트(Protests, 저항)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전통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것 또한 종교인의 책무인 것이죠.”

종교평화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레페스 포럼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학자와 불교 학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종교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레페스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료집을 정리한 책 〈종교안에서 종교를 넘어〉(2017, 모시는사람들)와 〈지속적 폭력과 간헐적 평화_그 역전을 위한 종교적 대화〉(2020. 모시는사람들)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일본에서 레페스포럼의 확대 조직인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도 열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종교평화 움직임이 아시아권역으로 확대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레페스포럼의 폭넓은 활동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 시작 역시 개운사 훼불사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주지였던 천은 스님이 “사찰 복구는 우리 힘으로 할 테니 이 돈은 종교간 이해를 넓히고 종교평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레페스 포럼의 정체성을 종교간 교류와 대화에 두고 있는 이유다.

손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영성예술협회도 올해 산하기구로 종교평화원을 신설했다. 예술과 학문을 통해 종교간 이해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교류의 또 다른 창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훼불로 상징되는 여러 종교갈등은 사실 서로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중요합니다. 종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 올바른 종교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